

**본문 : 요한복음 13장 1-38절**

**제목 :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으라**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공개 사역이 마무리되고,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 **1.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과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는 뜻과 함께 **완전하고 극진하게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 **2.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당시 발을 씻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행동은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발 씻김을 거부하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제자도의 시작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주는 삶, 즉 낮아지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3.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식탁에서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가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는 실제 밤이면서 동시에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 어둠으로 들어가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 **4.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명령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사랑의 새로운 기준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낮아지고,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 5. 베드로의 자신감과 실패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세 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위해 죽으십니다.** 우리의 헌신보다 먼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다시 돌아왔고,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 핵심 메시지

요한복음 13장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고, 배신할 유다와 실패할 베드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낮아지고, 섬기고,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 <나눔 질문>

1.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2. 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도움을 충분히 받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3. 지금 내가 먼저 낮아져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까운 관계부터 생각해봅시다.
4.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을 내 관계에 적용한다면, 나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무엇이 달라져야 합니까?
5. 실패했을 때 나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편입니까, 다시 돌아가는 편입니까?